

번역은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

다문화시대 번역의 역할과 의미 더 커져

김윤한 |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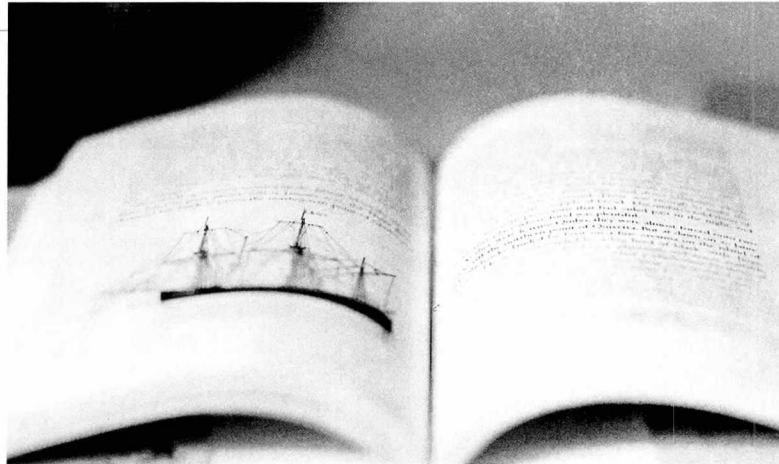
번역은 고중세부터 민족 간 이데올로기나 학문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다. 지구화 시대에 번역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강화됐다. 번역을 학문으로 규정하고 연구하는 국제적 경향에 따라 최근 우리도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번역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다.

국제화 시대에 번역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교환과 문화 수용의 수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학문, 사상, 기술, 정치, 경제, 레저 활동이 수용되기 때문에 번역은 학자나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중대한 의의가 있다. “현대는 번역의 시대”라는 카이에(P. Caillé)의 주장은 현대를 적절히 표현한 슬로건이다.

지금, 국가는 물론 개인의 발전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양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번역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오역과 악역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역된 번역물은 정신적 공해로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환경공해보다 더 심각하게 혼란시킨다. 현대인의 생활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역과 번역의 수용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비판적으로 번역물을 대한다. 번역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고 그 다음이 신속성이다.

민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 맡아온 번역

켈리(L. Kelly)가 서구문명의 발전에 번역자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피력했듯 예로부터 서양에서 번역자들은 민족들간의 이데올로기, 문학, 학문, 기술 등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을 이어주는 중개자, 즉 미지의 세계를 소개하는 사자로 추앙받았다. 서양의 문화, 특히 서양의 정신사는 대체로 새로운 번역학파의 형성과 활동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면, 12세기 번역의 고전시대에 서구사회는 문화적으로 우세한 이슬람 문화권과 접촉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발전했다. 그 당시 저명



국제화 시대에 번역은 정보교환과 문화 교역의 수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 번역가인 세빌라(J. Sevilla)를 중심으로 한 서양학자들은 아랍의 유명한 학자들의 저서, 이를테면 아랍어판 《유클리드 기하학》 《코란》 등을 라틴어로 번역해 서양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서양학자들은 아랍을 통해서 희랍어 원전을 접하게 됐다. 13세기에 도미니카 수도회의 신부이자 유명한 번역학자인 뮐베케(W. Moerbeke)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렌(Galen)의 의학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라틴어로 완역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은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론의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서양학자들은 이슬람 문화권과 교류하면서 결과적으로 첫째, 중세기에 스킨라철학의 전성기를 이룩했고 둘째, 대학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립된 대학은 현대문화와 지성의 요람으로서 서양문화 발전의 활력소가 됐다. 동양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불교의 전파가 현장법사의 불교경전 중국어 번역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번역이 인류문화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된, 이집트 상형문자와 그것을 희랍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새긴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114×72cm)의 돌 한 조각과 스웨덴 웁살라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4세기 무렵 희랍 선교사 불필라(Wulfila)가 희랍어 《성경》을 고트어로 번역한 《실버 바이블(Silber Bible)》은 인류문화의 훌륭한 유산인데, 이것들이 번역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는 드라마틱한 사실도 있다.

번역에 의해서 문화가 유입되는 것과 같이 그 역으로 문화는 번역을 통해서 수출된다. 다문화 시대에는 문화의 ‘우월성’ 보다는 ‘고유성’이 강조된다. 번역을 통해 우리도 전세계에 우리 고유문

화를 알아야 한다. 피테가 외국어를 모르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듯 남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 인간은 비교를 바탕으로 한 판단에 의거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과 진보는 비교를 통해서 이룩된다고 볼 수 있다.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번역이다.

**번역은 문화와
경제수준에 비례해**

번역은 국력, 즉 문화와 경제 수준에 정비례한다. 현재 전 세계 번역물들의 추세를 보면 영어로 출판된 서적의 번역본이 양적으로 압도적이다. 다시 말해 영어가 번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의 모든 언어가 영어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3년도 《유네스코 연감》을 보면 1987년에 77개국에서 65,297권의 번역본이 단행본으로 출판됐는데 그 가운데 독일에서 11,173권이 간행됐으며 가장 많이 번역된 언어는 영어로 32,219권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다. 서양 고중세에서 번역은 독자가 이미 원문과 친숙하다는 전제 아래 성서와 고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거의 원문 중심이었다. 또 번역문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고 번역자의 문체연습으로 여겨졌다. 원문은 영원하고 번역문은 시대에 따른다는 말과 같이 원문은 신성시됐고 번역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번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독자층에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포함하는 현대에서는 원문보다는 번역문이 중시되므로 이전의 번역방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필연적으로 번역의 실제 행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으로서 번역학의 정립이 요구됐다. 번역학은 1983년 '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에 등재됨으로써 독립된 개별 학문으로 정립됐다. 최근 번역은 인간의 행위로서 언어학적 관점뿐 아니라 해석학적, 기능적, 이데올로기적,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번역에 관한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됐다. 선진국에서는 학문적 욕구는 물론 실용적 필요에서도 번역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됐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번역연구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에 관한 전문서적은 물론 전문 학술잡지도 다량으로 출판되고 있다. 1956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제1차 국제 번역자 연맹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최근 이런 국제적 경향에 상응해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학에 번역학과와 번역학 연구소가 신설돼 번역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번역학회가 창립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번역에 관한 전문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의 번역연구 수준은 아직 초보적이며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완벽한 번역은 없고
최적의 번역만 있을 뿐**

인간의 정신적 활동 가운데 번역만큼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것은 없다. 번역은 일차적으로 언어학의 문제지만 본질상 학제간의 연구대상이다. 번역과정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보다는 언어 외적 요인이 더 중시된다. 이론상으로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최적의 번역이 있을 뿐이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특히 어려운 작업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언어학적 의미에서 이미 복잡하게 구조화된 문학성을 구성하는 언어적 자료 또는 언어적 장치가 재조직되기 때문에 한층 더 고차원의 기호학적 체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작가 자신의 고유한 표현의도로 보이는 사항도 텍스트의 여러 가능한 해석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다.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비체계적으로 형성되고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내포돼 있는 언어기호로 표현된 형식 속에는 그 언어 사용자의 정신, 전통, 관습, 문화 등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농축되게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곧 번역이다.

한편, 번역은 제2의 창작으로서 규범적이지 않고 창조적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번역자 자신의 번역능력에 따라 의미나 표현에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환언하면, 번역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언어환경에 상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지닌 복합적, 다차원적 구조다. 최적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번역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번역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한 것만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다. 번역자가 번역 텍스트를 객관적-분석적 또는 주관적-해석적 방법으로 이해했는지는 그의 개인적 인식구조, 즉 그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인식구조는 그의 출신, 학력, 관찰 또는 감지능력, 경험, 창조성, 선호하는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번역 텍스트의 의미론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 의해 규정된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이탈리아 속담은 번역의 어려움을 대변한다. 번역의 정의에 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번역은 번역이다"는 그림(J. Grimm)의 정의가 가장 설득력 있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

김윤환 교수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스위스 후리부룩대에서 독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인구어비교언어학》(언어학과 인문학), 논문으로 《번역과 텍스트언어학》 등이 있다.